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8.18



KOSDAQ | 자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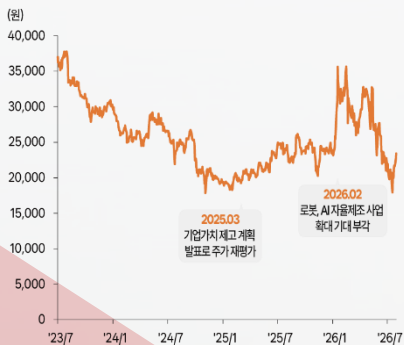
SFA (056190)

완전 무인화를 선도하는 AI 자율제조 로봇틱스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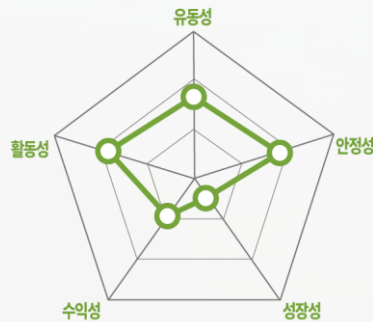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SFA는 로봇-AI 기반 물류 및 제조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종합 자동화 장비 업체. 자동창고·이송·피킹·분류 장비부터 WES/WCS-AI까지 물류자동화 전 공정을 아우르는 역량을 보유하며, 2030년 Full-Autonomous 전환이 진행될수록 개별 장비보다 Turn-key 시스템 경쟁력을 갖춘 동사의 수혜가 기대됨
- 기존 디스플레이·이차전지 중심의 제조자동화에서 반도체와 유통·일반제조로 적용처를 확대 중. 특히 반도체에서는 HBM·Legacy-Wafer 물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공정·검사장비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저케이블 생산장비도 고객사의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와 맞물리며 AI 인프라의 신규 매출축으로 부상
- 2026년 연결 매출액 1조 7,550억원(+7.6% YoY), 영업이익 1,357억원(+58.0% YoY)을 전망. 2027년에는 본업 성장과 반도체패키징 흑자전환이 더해지며 매출액 2조 178억원, 영업이익 1,829억원으로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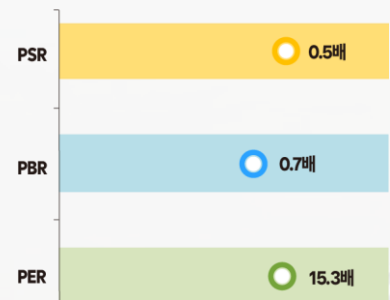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2030년 완전 무인화 전환, 로봇AI물류 경쟁력 부각

물류자동화 시장은 개별 장비 중심의 부분 자동화에서 피킹·보관·분류·이송 전 영역이 연결되는 Full-Autonomous(완전 무인화)로 진화 중. SFA는 자동창고·스태커크레인·OHT·AMR·AGV·피킹·분류 장비부터 AI·데이터 분석까지 물류 전 공정을 아우르는 통합 역량을 보유. 향후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별 장비보다 다수의 로봇과 운영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Turn-key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 무인화 전환이 로봇AI물류자동화의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반도체 공정·검사장비는 중장기 성장 동력, 해저케이블은 신규 실적 성장축

반도체에서는 기존 물류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AI 기반 HBM 비파괴 검사장비, WLP Review SEM, TGV 복합검사기 등 고부가 공정·검사장비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 아직 개발 및 고객 검증 단계이나 상용화될 경우 기존 고객 내 공급 품목 확대를 통해 고객당 매출과 부가가치 상승 기대. 반면 AI인프라에서는 해저케이블 생산장비가 이미 매출과 수주 증가로 이어지며 신규 실적 성장축으로 부상. AI인프라 부문 1H26말 수주잔고는 1,408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주요 고객사의 글로벌 생산능력 증설에 따라 관련 장비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2026년 이익 정상화, 실적 개선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 낮은 수준

2026년 연결 매출액은 1조 7,550억원(+7.6% YoY), 영업이익은 1,357억원(+58.0% YoY)으로 전망. 2027년에는 본업 성장과 반도체패키징 흑자전환이 더해지며 매출액 2조 178억원, 영업이익 1,829억원으로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 현 주가는 2026년 P/E 9.1배, P/B 0.9배, EV/EBITDA 5.4배로 실적 정상화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수준이며, 본업 성장과 자회사 손익 정상화가 할인 폭 축소의 주요 촉매로 판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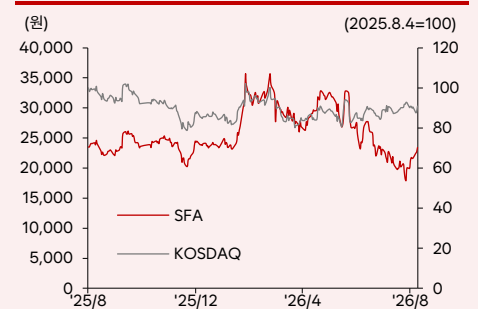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억원)	18,604	20,454	16,310	17,550	20,178
YoY(%)	10.4	9.9	-20.3	7.6	15.0
영업이익(억원)	889	-484	859	1,357	1,829
OP 마진(%)	4.8	-2.4	5.3	7.7	9.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00	-726	551	922	1,190
EPS(원)	1,113	-2,022	1,534	2,568	3,313
YoY(%)	-48.2	적전	흑전	67.3	29.0
PER(배)	27.3	N/A	15.2	9.1	7.1
PSR(배)	0.6	0.3	0.5	0.5	0.4
EV/EBITDA(배)	101	26.2	7.8	5.4	4.3
PBR(배)	1.1	0.8	0.9	0.9	0.8
ROE(%)	3.8	-7.5	6.1	9.9	11.8
배당수익률(%)	0.9	1.4	4.1	4.1	4.1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12)	23,400원
52주 최고가	35,650원
52주 최저가	17,930원
KOSDAQ (8/12)	8589p
자본금	180억원
시가총액	8,403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3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0억원
외국인지분율	12.25%
주요주주	다와이홀딩스 외 10 인 43.47%
	베어링자산운용 5.77%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9	-269	-19
상대주가	0.3	-4.1	-7.8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기업



기업 개요

기업 개요

1998년 삼성항공

자동화사업부에서 분사

SFA는 제조 공장과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삼성그룹의 자동화 사업을 모태로 1998년 분사해 설립되었다. 2005년 자동화물류사업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장비와 평판 글라스 제조 장비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2018년에는 이차전지 제조 장비 시장에 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이차전지 매출액이 별도 매출액의 52.3%(5,320억원)을 차지하는 최대 사업부가 되었다. 2024년 이후로는 전기차 캐즘으로 이차전지 투자가 위축된 대신 유동 및 물류 설비, 반도체, 수소연료전지로 성장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연결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는 M&A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SFA반도체를 편입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확보했고, 2016년 에스엔유프리시전, 2023년 씨아이에스를 인수하며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공정장비 영역을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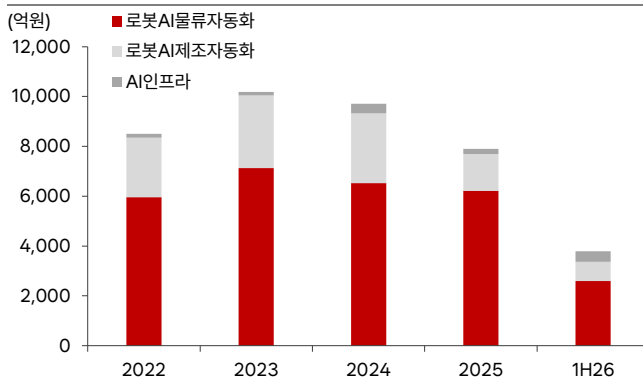
SFA 주요 연혁

1998~2005	2006~2015	2016~
1998.12 삼성항공 자동화사업부 분사, (주)SFA 설립 2001.12 코스닥 시장 상장 2002.06 기흥사업장 준공(경기도 화성시) 2004.04 아산사업장 개설(충청남도 아산시)	2008.07 최대주주 (주)와이솔딩스로 변경 2011.04 본사 이전(경남 창원 → 경기 화성) 2015.09 (주)STS반도체통신(現 (주)SFA반도체) 계열 편입 2016.03 별도 기준 연간 수주액 1조원 달성 2016.10 에스엔유프리시전(주) 계열 편입	2017.06 별도 기준 연간 매출액 1조원 달성 2020.10 스마트팩토리 브랜드 'NEO' 출시 2023.03 씨아이에스(주) 인수(전국공정 장비) 2024.12 씨아이에스(주), 에스엔유프리시전(주) 흡수합병 2026.06 씨아이에스(주), SFA넥셀로 사명 변경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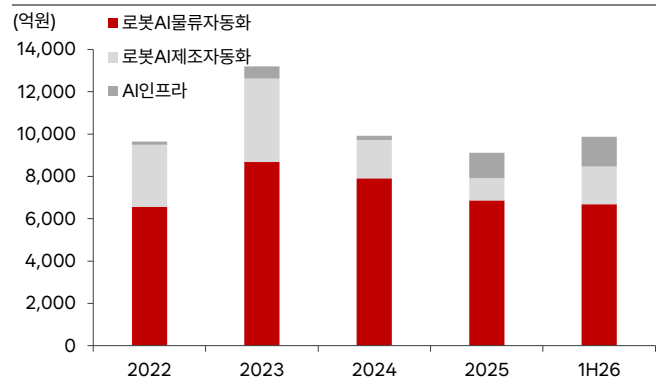
2025년 SFA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7,902억원(YoY -18.6%), 영업이익 977억원(YoY 흑자전환), 영업이익률 12.4%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로봇AI물류자동화 6,211억원(비중 78.6%), 로봇AI제조자동화 1,479억원(18.7%), AI 인프라 212억원(2.7%)으로 구성된다. 2026년 상반기 별도 기준 수주잔고는 9,875억원이며, 수주잔고는 로봇AI물류자동화 6,687억원(비중 73.3%), 로봇AI제조자동화 1,780억원(19.5%), AI 인프라 1,408억원(15.4%)으로 구성된다.

별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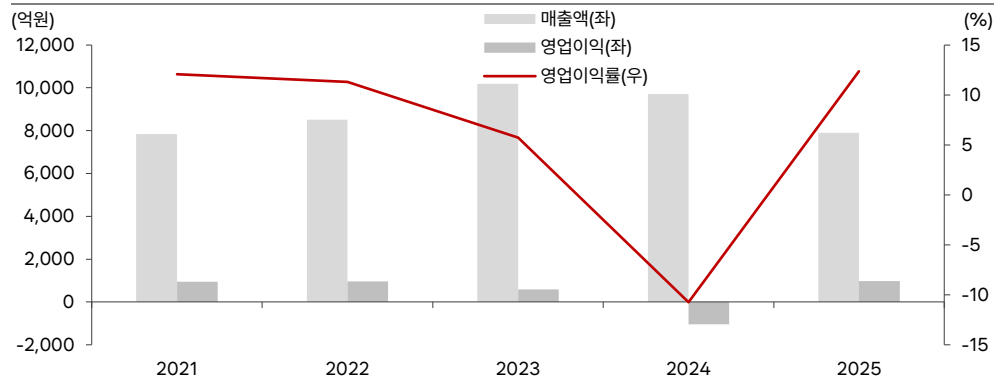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별도 기준 전방 산업별 수주잔고 추이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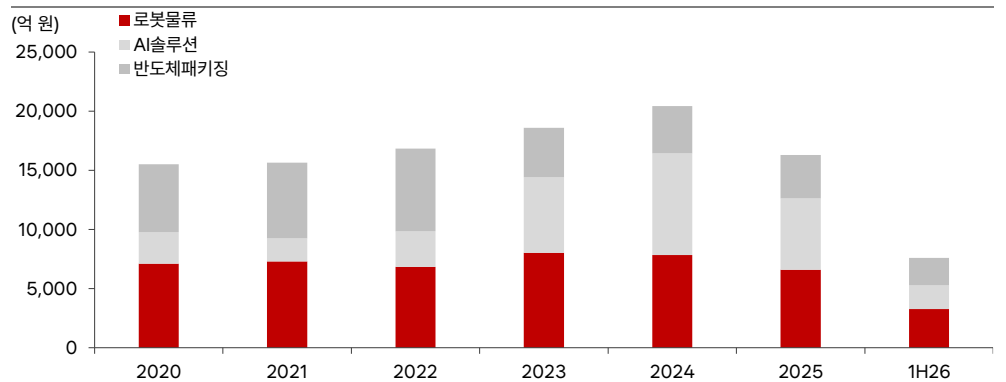
별도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6,310억원(YoY -20.3%), 영업이익 859억원(YoY 흑자전환), 영업이익률 5.3%를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로봇물류 6,610억원(YoY -15.8%), AI솔루션 6,030억원(YoY -29.9%), 반도체 패키징 3,663억원(YoY -8.3%)로 구성된다. AI 솔루션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포함하는 사업부문이다.

연결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종속회사 12개사, 상장사는 SFA반도체&SFA넥셀

별도 영업이익률 12.4%와 연결 영업이익률 5.3%의 차이는 자회사 실적에서 발생한다. 연결 매출액은 SFA 별도 7,902억원, SFA반도체 3,674억원, 씨아이에스 4,072억원, 생산자회사 및 해외법인 2,385억원을 합산한 뒤 내부거래 1,724억원을 제거해 산출된다. 2Q26 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12개사(상장 2사, 비상장 10사)이며, 주요 자회사로는 상장사인 SFA반도체(지분율 55.12%, 상장)와 SFA넥셀(33.05%, 상장)이 있으며, 그 외 자회사는 생산 및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SFA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테스트를 수탁하는 OSAT 기업으로 필리핀 법인이 주요 생산 거점이다. 2025년 매출액 3,674억원(YoY -8.3%), 영업손실 196억원(YoY 적자전환), 당기순손실 191억원을 기록했다. 씨아이에스(주)는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기업으로 2024년 12월 1일 에스엔유프리시전(주)을 흡수합병해 디스플레이 증착&검사장 비까지 영역을 넓혔고, 2026년 6월 11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명을 SFA넥셀로 변경했다. 2025년 매출액 4,072억원(YoY -19.9%), 영업이익 333억원(YoY -43.5%), 당기순이익 287억원이다.

비상장 종속회사로는 지분율 100%의 (주)둔포기계와 (주)에이디엠(정밀기계 제조), SFA서비스(주)(AS 서비스)가 있으며, 이들은 본사가 수주한 장비의 제작, 조립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해외에는 SFA(HK) Limited, SFA(Shenzhen) Limited, SFA VIETNAM, SFA Engineering Hungary와 2025년 1월 설립한 SCS Factory Service Inc.(미국), SCS Factory Service Corp.(캐나다) 등의 유통 및 AS 법인을 두고 있다.

SFA 별도 및 주요 자회사 매출 추이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1H26
SFA (별도)		로봇AI물류자동화	5,965	7,126	6,521	6,211	2,590
	A자울제조	로봇A제조자동화	2,389	2,920	2,798	1,479	778
	로보틱스	AI인프라	154	133	394	212	428
	소계		8,509	10,179	9,713	7,902	3,796
연결	SFA반도체	반도체 패키징	6,994	4,376	4,005	3,674	2,336
	SFA넥셀	이차전지 공정장비	0	2,843	5,085	4,072	1,224
종속	에스엔유프리시전	디스플레이 증착 및 검사장비	1,244	1,292	941	N/A	N/A
회사	생산자회사	시스템 및 장비 솔루션	2,403	2,804	3,003	2,385	1,022
소계			10,642	11,315	13,035	10,131	4,583
내부매출			-2,306	-2,682	-2,293	-1,724	-767
합계			16,844	18,604	20,454	16,310	7,612

주: 에스엔유프라이전은 2024년 12월 SFA넥셀에 흡수합병.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제품

연결 매출액 1조 6,310억원은

별도 기준 3개 사업부

SFA반도체&SFA넥셀

생산자회사로 구분

SFA의 주요 사업부문은 연결 기준으로 6개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별도 기준 3개의 사업부문인 로봇AI물류자동화와 로봇AI제조자동화(공정장비&검사측정장비), 그리고 AI인프라 사업이다. 연결종속회사인 SFA반도체(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수탁), SFA넥셀(사명 변경 전 씨아이에스,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등), 생산자회사 및 해외법인(제작&조립&AS 등)이다. 2025년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로봇AI물류자동화 6,211억원, 로봇AI제조자동화 1,479억원, AI인프라 212억원, SFA반도체 3,674억원, SFA넥셀 4,072억원, 생산자회사 및 해외법인 2,385억원이며, 여기서 내부매출 1,724억원을 제거한 연결 매출액이 1조 6,310억원이다. 이하 각 부문 및 자회사별 매출액은 내부거래 조정 전 기준이다.

사업부문은 대상을 옮기고 보관하는 로봇AI물류자동화와 소재 등을 직접 생산하고 결과를 검사하는 로봇AI제조자동화(공정장비 및 검사장비), AI인프라 부문으로 나뉜다. 또한 전방 산업은 유통 및 기타제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특히 유통과 기타제조 산업을 제외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으로는 물류 자동화와 공정장비 및 검사장비 등의 제품을 함께 공급한다.

로봇물류의

향후 성장축은

반도체와 물류자동화

로봇AI물류자동화[2025년 매출액 6,211억원]

로봇AI물류자동화 사업부문은 로봇물류시스템을 담당하며, 2025년 별도 매출액의 78.6%를 차지하는 주력 부문이다. 공급 산업은 유통 및 기타제조 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걸쳐 있다.

유통 물류센터와 식품, 유제품, 타이어, 석유화학, 제약, 자동차 등 제조업 현장에 물류시스템과 생산자동화시스템을 공급하는 영역이다. 자동화 수요가 있으면 산업군과 무관하게 고객이 될 수 있어 거래선이 가장 다변화돼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국내 주요 가전회사, 다이소, LS전선, 현대차, 머크 등이 있다. 핵심 품목은 보관, 피킹, 분류 세 기능으로 나뉜다. 또한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공정 장비 외에도 공정 전후에 필요한 물류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

반도체항 로봇물류의 주력 제품은 클린 물류 시스템이며 핵심 품목은 OHT(Over-Head Hoist Transfer)다. OHT는 웨이퍼가 담긴 운송용기(FOUP)를 팸 천장에 설치된 레일에 매달아 공정장비 사이로 옮기는 이송 로봇이다. 클린룸 바닥 공간을 쓰지 않고, 파티클의 영향도 줄일 수 있어 팸의 표준 물류 방식으로 쓰인다. 동사는 OHT 외에 층간 이송용 리프터, 공정 간 대기 물량을 보관하는 스토커(Stocker), 컨베이어, AGV/AMR 등을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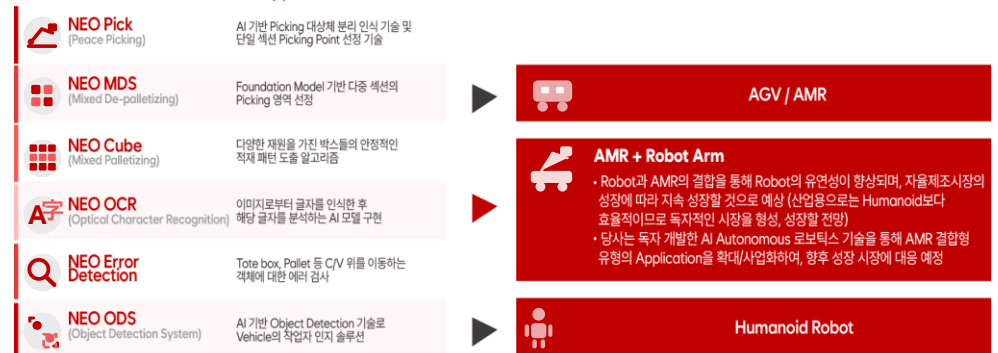
로봇물류 부문 주요 제품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NEO AI 내재화를 통한 로봇물류 기능 고도화

자율제조 로보틱스 필수 핵심 기술: NEO Applications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로봇AI제조자동화 역시 향후 성장축은 반도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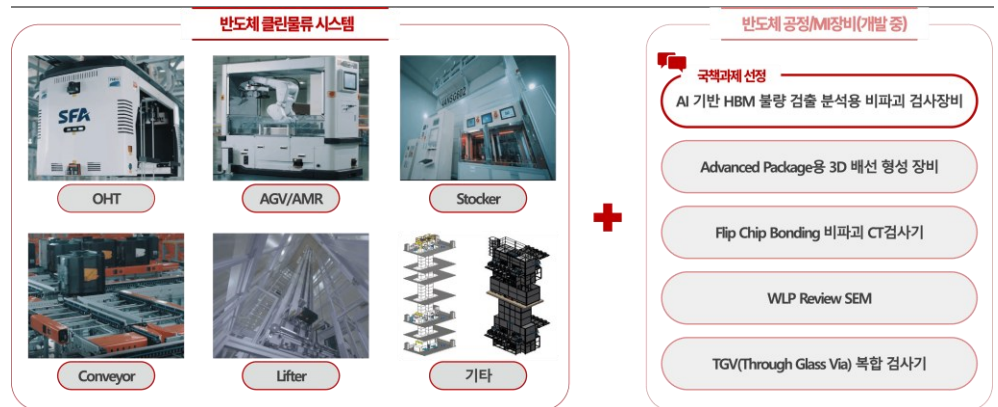
로봇AI제조자동화[2025년 매출액 1,479억원]

로봇AI제조자동화 사업부문(별도 매출 비중 18.7%)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장비와, 완성품의 양품을 판정하고 치수를 재는 검사 및 측정장비로 구성된다. 이차전지 조립, 화성 공정의 일부 장비와 셀 내부 결함을 해체 없이 검출하는 3D CT 비파괴검사기, AI 외관검사기,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장비, 연료전지 제조장비를 공급해 왔으며,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는 연결중속회사 SFA넥셀이 담당한다.

신규 성장축으로 HBM 비파괴 검사장비, Flip Chip Bonding CT 검사기, WLP Review SEM, TGV 복합 검사기, Advanced Package용 3D 배선 형성 장비 등 반도체 공정·검사장비를 개발 중이다.

또한, 연료전지 산업에서는 물류자동화와 공정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SOFC 및 PEMFC 제조라인을 위한 탄기 공급역량을 확보했다. 현재 발전용 및 자동차용 연료전지 제조장비를 국내외 고객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2Q26 기준 발전용과 자동차용 누적 수주액만 1,600억원을 달성했다.

SFA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물류자동화+제조자동화)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인프라[2025년 매출액 212억원]

AI인프라 부문(별도 매출 비중 2.7%)에는 해저케이블 제조설비가 포함된다. 주요 품목은 제조 중인 케이블을 이송·보관하는 대형 텐테이블과 복수의 케이블 코어를 하나로 연합하는 수직연합기다. 동사는 2009년부터 관련 장비를 공급해 왔으며, 대형 텐테이블과 수직연합기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메모리 패키징이 매출의 81.2%

SFA반도체[2025년 매출액 3,674억원]

(주)SFA반도체(지분율 55.12%, 상장)는 앞의 두 사업부문과 달리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을 위탁 수행한다. 반도체 제조는 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는 전공정과, 웨이퍼를 잘라 칩으로 만든 뒤 전기적 연결과 외형을 완성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SFA반도체는 종합반도체업체(IDM), 팹리스, 파운드리로부터 주문을 받아 후공정의 패키징과 테스트를 수행하는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기업으로, 2015년 9월 계열 편입됐다. 2025년 매출 구성은 컴퓨터 주변장치, 저장장치용 메모리 패키징이 81.2%, 산업용, 전력용 등 비메모리가 18.1%이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다.

주요 생산 거점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필리핀 법인(SFA SEMICON Philippines Corp.)이며 제2공장을 준공해 생산능력을 확대했다. 2014년 범핑사업장 준공 이후에는 칩 패드에 솔더 범프를 형성하는 범핑(Bumping)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범프는 칩을 기판이나 다른 칩에 뒤집어 직접 접합하는 플립칩 패키징의 핵심 구조물로, 패키지가 고집적&소형화될수록 수요가 늘어난다. 2025년 매출액은 3,674억원(YoY -8.3%), 영업손실 196억원을 기록하며 연결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극·조립·화성 3공정 턴키를

완성한 전극장비사,

영업이익 333억원

SFA넥셀[2025년 매출액 4,072억원, 사명 변경 전 씨아이에스]

SFA넥셀(지분율 33.2%, 상장)은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기업이다. 이차전지 제조는 전극, 조립, 화성 3개 공정으로 나뉘며, 전극공정은 활물질을 섞은 슬러리를 알루미늄&구리 포일에 도포하고 압착, 절단해 전극을 만드는 단계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한다.

주력 품목은 슬러리를 균일한 두께로 도포&건조하는 코터(Coater), 회전 롤러의 압력으로 전극 밀도를 높이는 캘린더(Calender, 롤 프레스), 전극을 규격 폭으로 절단하는 슬리터(Slitter)이다. 2025년 매출 구성은 캘린더 51.6%, 기타 장비 18.6%, 증착 및 검사측정 장비 15.9%, 코터 11.3%, 슬리터 2.6%로 구성된다.

SFA는 2023년 3월 씨아이에스 편입을 통해 전극공정부터 본사의 조립·화성공정 장비까지 이차전지 제조 전반의 공급 역량을 확보했으며,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해외 신규 셀 제조사가 주요 고객이다. 2024년 12월에는 디스플레이 증착장비 업체 에스엔유프리시전을 흡수합병해 디스플레이 증착&검사장비까지 영역을 넓혔고, 2026년 6월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명을 SFA넥셀로 변경했다.

전고체 전지용 소재 및 공정기술과 LFP용 건식 코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 매출액은 4,072억원(YoY -19.9%), 영업이익 333억원이며, 전기차 캐즘으로 신규 라인 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ESS 및 전고체 관련 투자 활성화에 따른 개선이 기대된다.

주요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및 지분율(2026년 상반기말 기준)

회사명	자산(억 원)	부채(억 원)	자본(억 원)	지분율
(주)둔포기계	369	176	193	100.00%
(주)에이디엠	292	188	104	100.00%
에스에프에이서비스(주)	374	112	263	100.00%
SFA(HK) Limited(*1)	280	21	259	100.00%
SFA VIETNAM CO., LTD.	3	1	3	100.00%
SFA Engineering Hungary Kft.	4	0	4	100.00%
SCS FACTORY SERVICE CORP.	6	6	0	66.62%
SCS FACTORY SERVICE INC.	13	9	4	100.00%
(주)에스에프에이반도체	5,778	979	4,799	55.12%
(주)SFA넥셀(구, 씨아이에스(주))	6,885	1,552	5,334	3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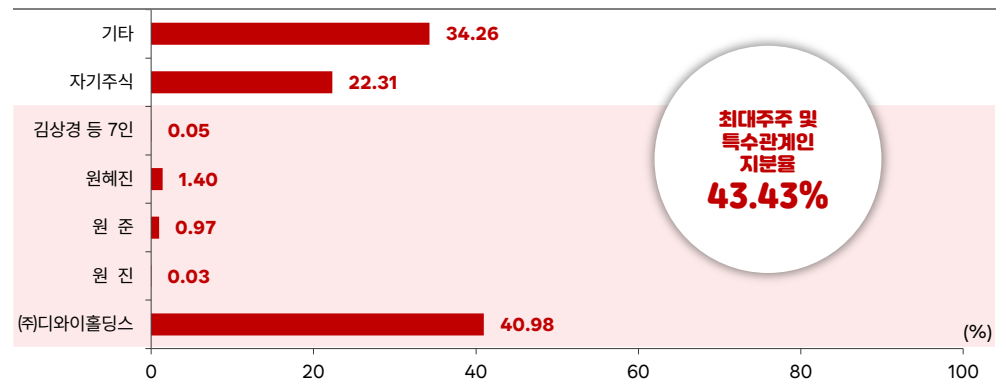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최대주주 (주)디와이홀딩스
40.98%, 자기주식 22.31%

2026년 6월 30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5,908,760주이며 자기주식 8,009,848주(22.31%)를 제외한 유통 주식수는 27,898,912주다. 최대주주는 (주)디와이홀딩스로 14,713,793주(40.9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3.43%이다. (주)디와이홀딩스는 원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08년 7월 최대 주주로 변경된 이후 변동은 없다.

2Q26말 기준 주주 구성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창고와 제조현장의 물류 흐름을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시스템

제조 물류의 경쟁력은
생산설비와의 연계성 때문에
레퍼런스가 중요

물류자동화는 창고와 제조현장에서 원재료·부품·재공품·완제품의 보관과 이동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AGV·AMR 등 이동로봇, 피킹·팔레타이징 로봇, 자동창고시스템(AS/RS), 컨베이어·분류설비와 이를 제어하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주요 구성요소이다. 개별 장비는 이동·보관·피킹·분류 등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물동량과 작업 순서에 맞춰 하나의 물류 흐름으로 연동돼야 한다.

물류자동화의 주요 적용처는 창고·유통과 제조현장으로 구분된다. 창고·유통 물류는 주문 처리속도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인력 투입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반면 제조물류는 원재료 투입부터 공정 간 이송, 재공품 보관과 완제품 출하까지 생산공정을 끊김 없이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장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더라도 자재의 이동과 보관에 인력이 개입하면 전체 생산성은 수작업 구간의 처리능력에 제약받는다. 제조기업의 자동화 투자가 개별 생산장비에 서 공장 전체로 확대될수록 공정 사이를 연결하는 물류자동화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구조이다.

제조현장에서는 물류장비가 생산설비 및 공정 데이터와 연계돼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은 이송 정밀도뿐 아니라 청정도·안전성, 부품 추적성과 장비 간 인터페이스까지 요구한다. SEMI Korea Autonomous Fab Working Group도 부품 물류로봇의 안전성·청정도·이동성, 부품 포장 표준화에 이어 Robot-ready 장비 설계와 통신 인터페이스 등 제조현장 전체의 상호운용성을 주요 표준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제조물류가 단순한 로봇 도입을 넘어 장비·부품·데이터·운영체계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류자동화의 기술 중심도 개별 장비의 자동운전에서 전체 물류 흐름의 최적화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AGV·AMR과 로봇팔 등 유연한 장비에 WES·WCS와 AI를 결합해 물동량과 설비 상태에 따라 작업 순서와 이동경로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 기준도 개별 로봇의 속도와 적재능력에서 핵심 장비의 개발·제작, 고객별 물류 흐름 설계, 운영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 자동화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류는 생산설비와의 연계와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요구하므로 산업별 공정 이해도와 구축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 창고물류가 시장 성장을 견인, 제조현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

물류 자동화 수요를 이끄는
창고 및 유통 영역

글로벌 물류자동화 수요는 현재 창고·유통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개된 시장통계도 주로 창고 내부의 이동·보관·피킹·분류를 포괄하는 Warehouse Robotics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제조공장 물류 전체를 직접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지만, 물류자동화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적 수요 확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지표이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창고 물류로봇 시장은 2026년 109.6억달러에서 2031년 245.5억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17.5% 성장할 전망이다. 해당 시장에는 산업용 로봇, 분류시스템, 컨베이어, 팔레타이저, AS/RS와 AGV·AMR 등이 포함된다. 같은 기간 AGV·AMR을 포함한 이동로봇은 연평균 18.02%, 피킹·분류 분야는 18.11%, 운영 소프트웨어는 18.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웨어 설치 확대와 함께 복수의 장비를 제어하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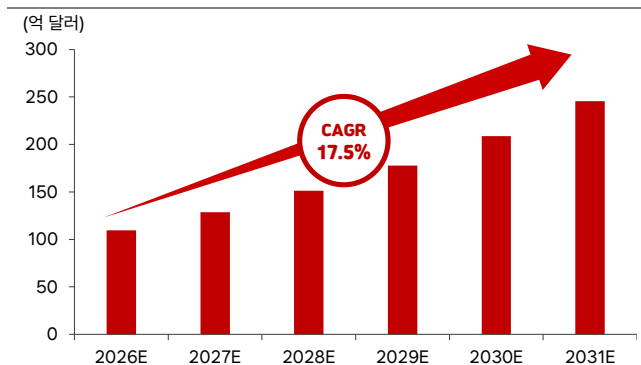
실제 판매대수에서도 운송·물류용 로봇이 전문서비스로봇 시장의 최대 응용처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4년 전문서비스로봇 판매량은 약 20만대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운송·물류용 로봇은 10만 2,900대로 14% 증가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운송·물류용 로봇은 주로 창고와 공장 내부에서 제품과 자재를 운반하는 이동로봇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2025년 글로벌 창고 물류로봇 시장의 39.52%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며, 2031년까지 연평균 17.94%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물류로봇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전기전자 등 제조업 기반이 큰 아시아 지역에서는 창고뿐 아니라 제조현장으로의 적용 확대 가능성도 높다. 최종 수요처 가운데 자동차 물류는 2031년까지 연평균 17.96% 성장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물류로봇 수요가 유통센터를 넘어 부품 공급과 공정 간 이송이 필요한 제조현장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고에서 축적된 자동화 기술은 제조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AGV·AMR은 부품과 재공품의 공정 간 이송에 활용되고, AS/RS는 원재료·부품·재공품을 보관하면서 생산설비의 작업 순서에 맞춰 자재를 공급한다. 생산품목과 물동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제조현장에서는 고정형 컨베이어와 함께 AS/RS·이동로봇을 조합해 보관 효율과 배치 유연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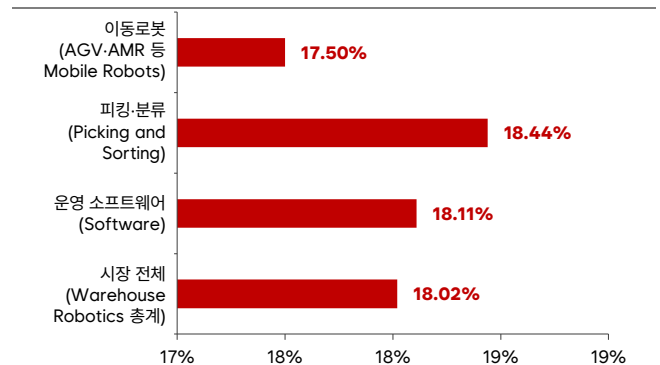
고객사의 투자 범위가 단일 장비에서 보관·이송·피킹·분류설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시스템으로 확대될수록 프로젝트당 공급 범위도 넓어진다. 이에 따라 핵심 장비의 개발·제작과 고객별 시스템 설계, 운영 최적화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자동화업체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창고 물류로봇(Warehouse Robotics)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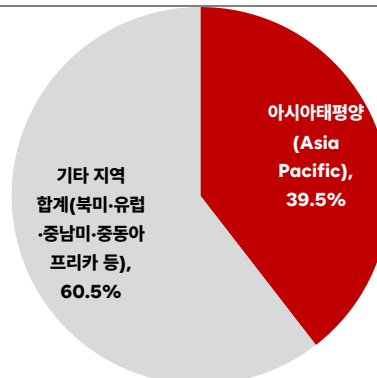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창고 물류로봇 시장 세그먼트별 CAGR 비교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창고 물류로봇 시장 지역별 비중 (2025년 기준)



자료: STIQ Ltd, "STIQ 2025 Global System Integrator Top 20 Lis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선도업체의 경쟁력, 자체 장비에서 운영 서비스로 확대

종합 자동화 업체는 신규 수주에 이어 지속적인 유지 보수 수요 확보 가능

글로벌 창고자동화 시장의 상위권은 특정 로봇이나 장비 한 종류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물류설비를 자체 개발·제조하고, 이를 고객별 운영조건에 맞춰 공급하는 종합 자동화업체가 형성하고 있다. STIQ가 집계한 2025년 글로벌 창고자동화 업체 순위에서 Dematic(미국)은 관련 매출 약 32억달러로 1위, 일본 Daifuku는 약 25억달러로 2위를 기록했으며, Vanderlande(네덜란드), KNAPP(오스트리아), Symbolic(미국) 등이 상위권을 구성한다. 이들 업체는 자동창고, 컨베이어, 이동로봇과 피킹·분류설비에 운영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해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Dematic(비상장)을 보유한 KION그룹은 물류자동화의 부가가치가 장비 공급에서 운영 최적화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KION은 2026년부터 Dematic이 속한 사업부를 Intelligent Automation Solutions로 변경하며 자동화설비, 이동로봇, 소프트웨어와 AI를 결합한 사업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Dematic은 자동창고와 컨베이어 등 물류설비뿐 아니라 물동량과 설비 상태에 따라 작업을 배분하고 장비 간 병목을 조정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이는 고객의 자동화 투자가 개별 장비 도입에서 전체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치 이후 서비스도 주요 사업영역이다. KION의 관련 사업부는 유지보수, 부품 공급, 기존 설비의 개조와 현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서비스 매출이 외부 매출의 41%를 차지했다. 대규모 자동화 시스템은 장기간 사용되는 생산 인프라인 만큼 설비 노후화와 물동량 변화, 생산계획 변경에 따라 유지보수와 부품 교체, 개조·증설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초기 장비 공급뿐 아니라 설치 기반을 활용한 서비스 역량이 고객 관계 유지와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Daifuku는 자체 장비 개발·제조와 고객 맞춤형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설치 이후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동창고, 컨베이어와 이동설비 등 주요 제품을 자체 개발·생산하고, 이를 고객의 공간과 물동량, 공정조건에 맞춰 설계한다. 공급 범위도 컨설팅과 기획·엔지니어링부터 설계·제조, 설치와 애프터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다. FY2025 서비스 매출은 1,766억엔으로 전체 매출의 약 27%를 차지했으며, FY2026에는 2,003억엔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자체 장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설치 기반은 유지보수와 부품 교체, 개조·증설 수요를 반복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종합 자동화 역량은 제조물류에서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현장은 생산설비와 물류장비 간 데이터 연계뿐 아니라 이송 정밀도, 청정도와 24시간 가동 안정성을 요구한다. 신규 생산라인은 설계 단계부터 장비 배치와 물류 동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기존 공장 역시 제한된 공간과 가동일정에 맞춰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 장비 공급 능력보다 산업별 공정 이해도와 시스템 통합 경험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최근 수주 흐름에서도 제조물류가 글로벌 자동화 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Daifuku의 2026년 상반기 신규수주는 4,401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으며, 반도체 생산라인용 클린룸 시스템과 제조·유통용 Intralogistics, 자동차 시스템이 성장을 견인했다. 전방산업별로는 전자·반도체용 수주가 2,032억엔으로 74.2% 증가해 전체 수주의 46.2%를 차지했고, 자동차·부품용 수주도 433억엔으로 36.6% 증가했다. 특히 전자·반도체와 자동차용 수주가 동시에 증가한 점은 물류자동화 수요가 유통센터를 넘어 생산라인 내부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조물류 시장이 확대될수록 개별 장비의 가격이나 단품 성능보다 자체 장비 포트폴리오, 고객별 시스템 설계, 운영 소프트웨어, 산업별 공정 이해도와 구축 레퍼런스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설치 기반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종합 자동화업체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뿐 아니라 유지보수·개조·증설 수요를 반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시장 성장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한다.

2025 글로벌 창고자동화 공급업체(System Integrator) 순위

순위	기업명	국가	관련 매출(억달러)	비고
1	Dematic	미국(KION그룹 자회사)	32.4	KION Supply Chain Solutions 산하
2	Daifuku	일본	25	
3	Vanderlande	네덜란드	23.3	Toyota 그룹 산하
4	KNAPP	오스트리아	21.8	
5	Symbotic	미국	16.9	
상위 5개사 합계			119.4	

자료: STIQ Ltd, "STIQ 2025 Global System Integrator Top 20 Lis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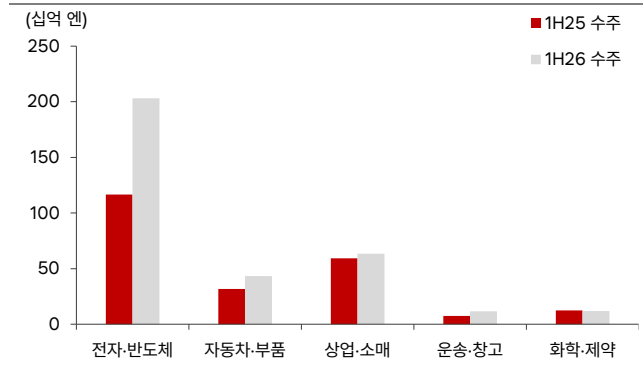
글로벌 물류자동화 선도업체 Daifuku의 전방산업별 성장 전망

전방산업	'20~'23년 매출 CAGR	주요 성장 요인	23~27년 예상 매출 CAGR
반도체·전자	14.10%	반도체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도 증장기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주요국의 신규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이 자동화 수요를 견인	7% 초과
상업·소매·운송·창고	7.40%	B2C 시장 확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류 효율화 투자 증가, 환경 대응을 위한 공급망 재편	7% 초과
제조업 및 기타	4.90%	제조업 리쇼어링과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대응한 공장 자동화 투자 확대	7% 초과
공항	16.80%	항공 여객 증가에 따른 공항 신설·확장, 인력 부족에 대응한 자동화와 보안설비 투자 지속	3% 초과~7% 이하
자동차·부품	0.60%	중장기 자동차 생산량의 점진적 증가와 xEV 전환에 따른 생산라인 신규·개조 투자 지속	3% 이하

주: 2020~2023년 CAGR은 직전 3개년 사업계획 기간의 매출 성장률이며, 2023~2027년 전망은 다이후쿠가 제시한 성장 구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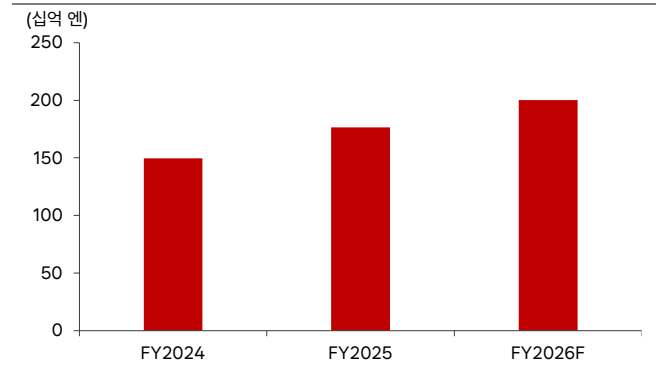
자료: Daifuku,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Daifuku 전방산업별 신규수주



자료: Daifuku,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Daifuku 서비스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Daifuku,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로봇AI물류자동화, 2030년 완전 무인화 전환의 핵심 수혜 기업

장기적으로 완전 무인화 확대에
따른 턴키 수주 기대

물류자동화 시장은 개별 장비 도입에서 피킹·보관·분류·이송 전 영역이 연결된 완전 무인화(Full-Autonomous)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SFA는 2030년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로봇물류 전 영역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Advanced-Auto 단계에서 AI 로봇피킹, Shuttle-Mobile Robot, 자동분류·적재 로봇, AI 기반 AMR 등을 상용화하거나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향후 Human-like Robot Hand, 상·하차 로봇, Dual-Arm Mobile Robot 등이 추가되면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완전 무인화가 진행될수록 개별 장비 성능보다 다양한 로봇과 운영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통합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로봇물류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자동창고와 스테커크레인 등 보관설비부터 피킹·팔레타이징 로봇, OHT·AMR·AGV 등 이송설비, 자동분류·자동포장 시스템까지 물류 전 공정을 커버한다. 여기에 WES/WCS, AI-데이터 분석 및 Turn-key 솔루션 역량까지 보유해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고객의 물류 흐름 전체를 설계·운영하는 시스템 공급이 가능하다. Peer 대비 AGV/AMR, Automated Storage, Shuttle Robot, Picking Robot, WES/WCS, AI & Data Analytics, Turn-key Solution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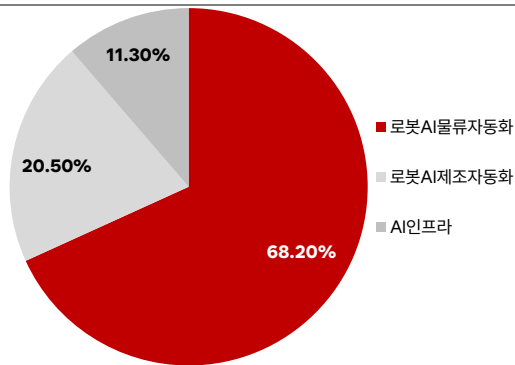
누적 공급실적도 통합 시스템 구축 역량을 뒷받침한다. 자동창고는 1,700세트 이상, 멀티 스테커크레인은 700세트 이상을 공급했으며, 자동분류·자동포장과 AMR·AGV·RGV 시스템도 다수의 물류센터에 적용됐다. 삼성전자 서비스 물류센터와 온라인 전용센터, BGF 물류센터, 다이소 허브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다품종·대규모 물류환경에서의 설계·구축 역량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레퍼런스는 고객사가 부분 자동화에서 완전 무인화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때 추가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국내 주요 고객사의 HBM 제조라인에 OHT 공급 계약을 확보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Legacy 메모리 Front-end에서 Stocker와 Lifter 수주를 확보했다. 향후 OHT를 포함한 Turn-key 물류시스템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Wafer 분야에서도 중화권 고객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라인 역시 자율제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 클린물류와 공정 연계 경험을 보유한 동사의 적용 가능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자체 NEO AI 솔루션은 완전 무인화 전환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다. NEO는 영상 인식·검출, 이동 경로 최적화, 피킹·적재 알고리즘, 설비 모니터링 및 예지보전 기능을 통해 AMR·로봇팔·이송·피킹 장비를 지능화한다. 장비에서 생성되는 물동량, 작업시간, 이동경로와 설비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 전체 물류 흐름의 처리량과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구조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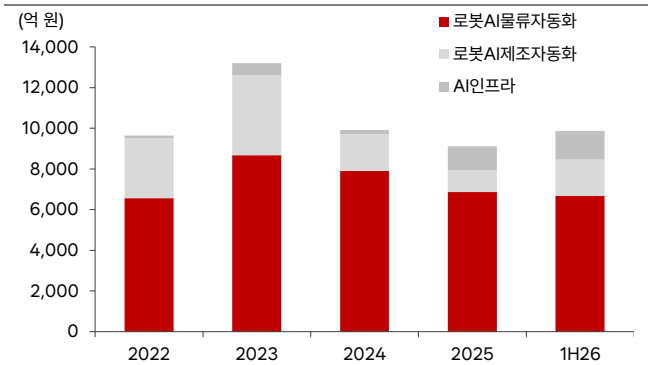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별도 기준 로봇시물류자동화 매출액은 2,590억원으로 전체 별도 매출의 약 68%, 수주잔고는 6,687억원으로 전체 잔고의 약 68%를 차지했다. 현재 실적의 중심이 이미 로봇시물류자동화인 가운데, 2030년 완전 무인화 전환은 기존 사업의 적용 범위와 프로젝트당 공급가치를 동시에 확대시키는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판단한다.

SFA 별도 제품군별 매출 비중(1H26)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FA 별도 제품군별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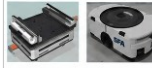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30년 완전 무인화(Full-Autonomous) 기술 구현 목표

Concept 구체화		2010년대	2015년대	2020년대	2026년	2030년
개발		Lv1. System Auto Low	Lv2. Semi-Auto Mid	Lv3. Semi-Auto High	Lv4. Advanced-Auto	Lv5. Full-Autonomous
사업화						
	기존	Manual Picking	Conveyor + DAS ¹ &DAS ²	GTP(Goods to Person) Picking System		
	Robot		Palletizing Robot & De-Palletizing Robot	AI Robot Picking System	Human-Like Robot Hands 및 Vision	사업화
	기존	Pallet / 중량 / 경량 Rack + 지게차 + Conveyor + Lifter				
	Robot	Pallet AS/RS (with Stacker crane Robot)	Box(tote) AS/RS	Shuttle Robot, Mobile Robot		사업화
	기존	Manual	Conveyor	Slide Shoe	Tilt Tray	
	Robot				Cross Belt Sorting System	
	기존	Manual	Conveyor + AGV(마그네틱, 레이저 기반)	Conveyor + AMR(QR & 라이다 SLAM 기반)		
	Robot			Conveyor + AMR (AI 기반 장애물 회피)	Auto Loading Robot, 자동 분류/적재 Robot, 상/하차 Robot	상/하차 Robot, 사업화
						Dual-Arm Mobile Robot, Dual-Arm Mobile Robot, 사업화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FA 로봇물류 전 공정 제품군과 누적 공급실적

자동창고	자동분류 시스템	AMR·AGV·RGV 이송시스템	자동포장 시스템
- 물류센터 - 스마트 물류센터 - 이차전지 생산라인	- 물류센터 - 스마트 물류센터 - 이차전지 생산라인	- 물류센터 - 스마트 물류센터 - 이차전지 생산라인	- 물류센터 - 스마트 물류센터
			
누적 공급실적 1,700세트 이상	누적 공급실적 100개 이상 물류센터	누적 공급실적 100개 이상 물류센터	누적 공급실적 100개 이상 물류센터
로봇 피킹 시스템	멀티 스택크레인	혼합 팔레타이징·디팔레타이징 시스템	
- 물류센터 - 스마트 물류센터	- 물류센터 - 스마트 물류센터 - 이차전지 생산라인	- 물류센터 - 스마트 물류센터 - 이차전지 생산라인	
			
누적 공급실적 5세트	누적 공급실적 700세트 이상	누적 공급실적 8세트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업계 최고 수준의 로봇물류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Company	AGV /AMR	Automated Storage	Shuttle Robot	Picking Robot	WES /WCS	AI & Data Analytics	Turnkey Solution
SFA	●	●	●	●	●	●	●
A사	●	●	●	●	●	●	●
B사	●	●	●	●	●	●	○
C사	●	○	○	○	○	○	○
D사	●	○	○	○	○	○	○

●: Strong ●: Partial ○: Limited ○: N/A

주: 국내 주요 로봇물류 Peer를 대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Turnkey 수행 역량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비교,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물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공정-검사장비까지 확대

반도체 공정 장비 확대는
중장기 성장 옵션

SFA의 반도체 사업 확대는 OHT·Stocker·Lifter 등 물류장비 매출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동사는 HBM·Legacy 메모리·Wafer 공정에서 확보한 고객사와 제조라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검사장비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물류시스템을 통해 고객사의 Fab 및 후공정 라인에 진입한 이후 인접 공정 장비까지 공급함으로써 고객당 매출과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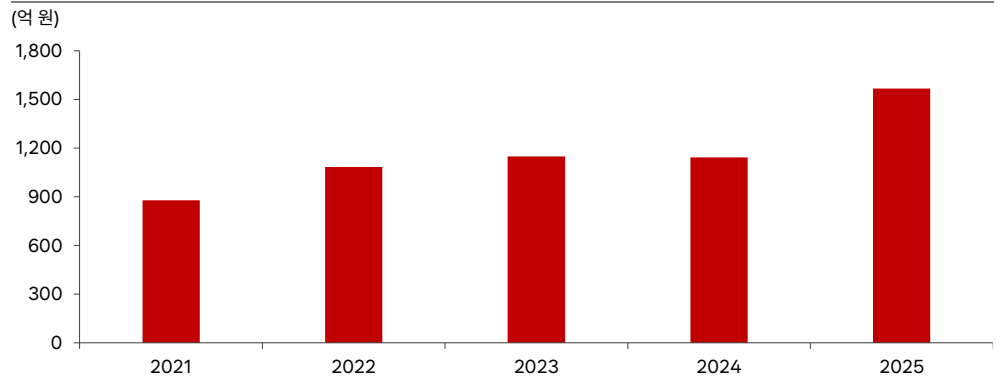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장비는 AI 기반 HBM 불량 검출용 비파괴 검사장비, Flip Chip Bonding 비파괴 CT 검사기, WLP Review SEM, TGV 복합검사기, Advanced Package용 3D 배선 형성 장비 등이다. 특히 HBM 비파괴 검사장비는 이차전지 3D CT 검사에서 축적한 비파괴 검사 기술을 반도체에 적용하는 장비이며, WLP Review SEM과 TGV 복합검사기 등으로 Advanced Packaging 공정에서 요구되는 검사-계측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확장의 강점은 이미 확보한 반도체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5년 HBM 제조라인 OHT 공급을 시작으로 Wafer-level, Front-end, Mid-end, Back-end까지 물류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공정-검사장비가 상용화될 경우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물류시스템 공급 과정에서 축적한 공정 조건과 라인 운영 경험 역시 신규 장비의 평가 및 양산 적용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도체 미세화와 HBM·Advanced Packaging 확대는 적층 내부 결함 검사, 미세 배선 및 Via 구조 검사 등 새로운 공정-계측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사가 개발 중인 장비는 신규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으로,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 기존 물류자동화 중심의 반도체 사업에 장비당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검사 매출이 추가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관련 장비는 아직 개발 및 고객 검증 단계에 있어 2026~2027년 실적에 대규모 매출을 선반영하기보다는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상 사업화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공정-검사장비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27년 138억원에서 2028년 900억원, 2029년 1,700억원, 2030년 2,94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동사의 매출 전망이 아닌 개발 중인 장비가 타겟 하는 시장 규모로, 향후 기존 반도체 물류시스템에 공정-검사장비가 추가되면서 반도체 사업의 공급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SFA 별도 기준 반도체향 매출액 추이



주: 2025년까지 기존 전방산업별 분류 기준 반도체향 매출액. 로봇물류 및 공정·검사장비 등 반도체 관련 매출을 포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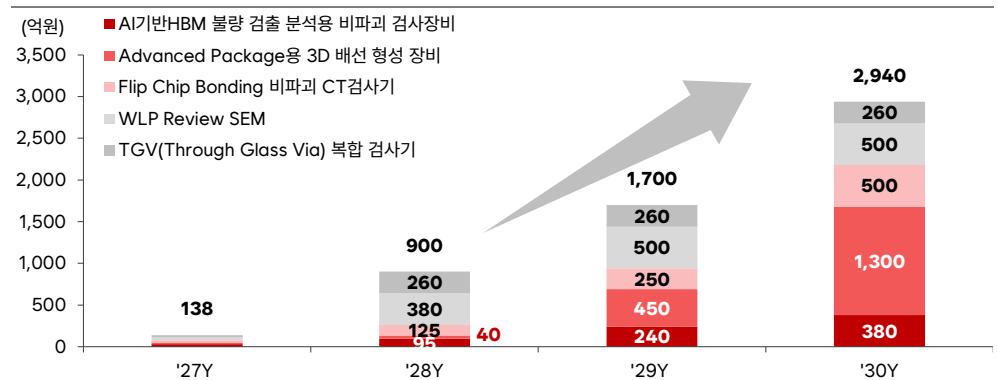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FA 반도체 공정·검사장비 개발 및 사업화 로드맵

개발진행장비	주요개발내용	~2027	2028	2029
AI 기반HBM 불량 검출 분석용 비파괴 검사장비	HBM 제조 공정 상 불량 검출 및 생산 이슈 대응을 위한 비파괴 검사 장비 개발 중 ('25년 AI팩토리 선도사업 관련 국책과제 주관연구 기관으로 선정)	개발 및 검증진행	사업화(예상)	
Advanced Package용 3D 배선 형성 장비	고가인 기존 패키징 기술인 TSV 공정과 기술적 한계가 있는 Wire-bonding을 대체할 신개념의 3D Package 배선 장비 개발	개발 및 검증진행		사업화(예상)
Flip Chip Bonding 비파괴 CT검사기	Planar CT 기반 기술 및 고집적 반도체 분야 고속 CT검사가 개발	개발 및 검증진행	사업화(예상)	
WLP Review SEM	반도체 공정 중 발생된 결함을 고해상도 분석 및 공정 평가 등을 하기 위한 Review SEM 검사 장비 개발 (당사 보유NEO AI 활용)	개발 및 검증진행	사업화(예상)	
TGV(Through Glass Via) 복합 검사기	실리콘에서 유리 기판으로 소재를 변경하는 구조에 따라 TGV 형성 공정에 요구되는 검사 장비 개발	개발 및 검증진행	사업화(예상)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FA 개발 장비별 대응 가능 시장 규모



주: 각 개발 장비의 예상 사업화 시점에 따른 개발 장비당 전체 시장 규모 예측치이며, SFA의 매출액 전망이 아님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인프라 성장 본격화, 해저케이블 장비가 신규 매출축으로 부상

해저케이블 장비는 신규 성장축

동사의 AI인프라 사업은 해저케이블 생산장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인프라 매출액은 2024년 394억원에서 2025년 212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 상반기에만 428억원을 기록해 전년 연간 매출을 이미 두 배 이상 상회했다. 별도 매출 내 AI인프라 비중도 2025년 약 3%에서 1H26 약 11%로 상승했다. 수주잔고 역시 2024년 말 192억원에서 2025년 말 1,187억원, 1H26말 1,408억원으로 확대돼 향후 매출 성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AI인프라 성장의 핵심은 해저케이블 생산장비이다. 동사는 로봇물류 사업에서 축적한 대형 이송·보관 및 정밀 제어 역량을 해저케이블 생산공정으로 확장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대형 해저케이블을 권취·보관하는 Turn Table과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하나로 연선하는 수직연합기 등이다. 해저케이블 대형화에 따라 텐테이블의 처리 용량도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구조물의 기계적 정밀도와 장시간 연속 가동 안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장기간의 공급 레퍼런스와 공정 엔지니어링 경험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2009년부터 LS전선에 관련 장비를 공급하며 약 17년의 공급 이력을 확보했다. 2025년 말 기준 해저케이블 장비 누적 수주액은 약 2,500억원이었으며, 1H26 AI인프라 신규수주 596억원이 추가되면서 관련 누적 수주 규모는 약 3,1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1H26말 AI인프라 수주잔고도 1,408억원으로 증가해 향후 매출 성장의 기반을 확보했다.

향후 성장의 중심은 주요 고객사의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는 대규모 해저케이블 생산거점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생산라인 구축 과정에서 관련 장비 발주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공급 이력과 장비 레퍼런스를 감안하면 신규 생산라인 구축 시 Turn Table과 연선·이송설비 등 복수 장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해저케이블 장비는 향후 연간 1,000억원대 수주가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고객사인 LS전선의 추가 해외 생산거점도 성장 옵션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저케이블 생산능력 확충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고객 레퍼런스를 활용한 추가 장비 수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투자규모와 착공 일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현재 실적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해상풍력의 원거리화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망 투자는 LS전선의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최종 수요 배경이다. 미국 공장을 통해 중장기 수주 기반이 강화되는 가운데 베트남 신규 생산거점까지 본격화될 경우 AI인프라 매출 비중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SFA 해저케이블 장비 공급실적

사업 추진 이력 **18년**누적 수주 실적 (원) **3,100억**'09~'21
누적 수주

총 41대 수주

(Turn Table 1,500t ~ 10,000t 38대
수직연합기 1,000t ~ 3,000t 3대)

'22

Turn Table 4대 (10,000t 2대 외)

'23

Turn Table 20대 (10,000t 2대 외)

'25

Turn Table 2대 (5,000t 1대 외) + 수직연합기 1대 (3,000t)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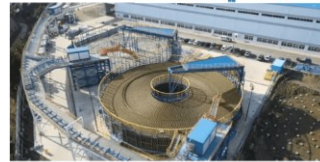
Turn Table 26대 (1,000t ~ 11,000t)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유일 대형 Turn Table 및 수직연합기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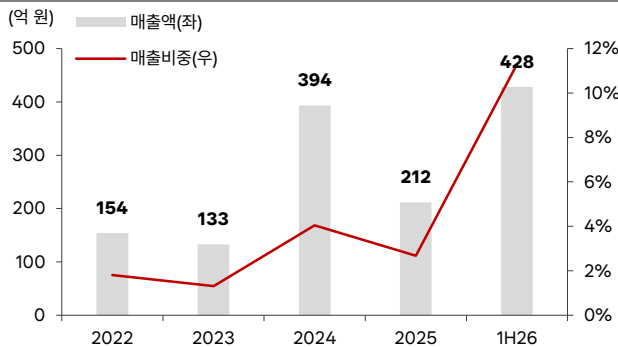
Turn Table

수직연합기

해저케이블
제조공정 내 공정
중인 케이블을 이송
및 보관하기 위한
필수 물류 설비해저케이블 제조에 있어 핵심제조설비로서,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얹어 하나의 해저케이블 형태로
만드는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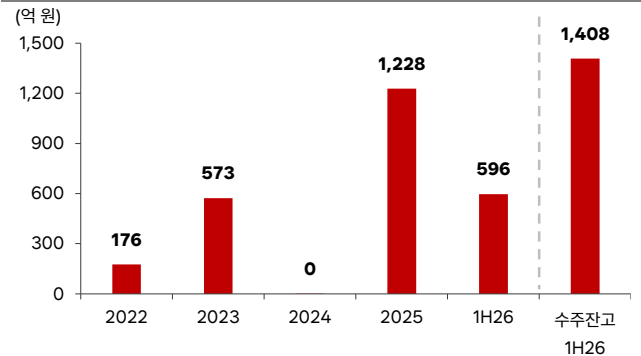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인프라 부문 매출 추이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 추이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LS전선 해저케이블 생산능력 확대 로드맵

사점	LS 전선 해저케이블 생산능력 확대
2021년	동해 해저 4동 투자 결정, 생산능력 1.5배 확대 계획
2023년 5월	해저 4동 준공, 아시아 최대 HVDC 전용 공장 확보
2023년 8월	해저 4동 설비 확장에 1,555억원 추가 투자
2024년 6월	해저 5동에 1,000억원 투자 결정
2025년 4월	미국 버지니아 공장 착공, 약 1조원 투자
2025년 7월	해저 5동 준공, 국내 HVDC 생산능력 4배 이상 확대
2026년 6월	미국 공장 201m VCV 타워 착공
2027년 하반기	미국 공장 완공 목표
2028년 1분기	미국 공장 상업생산 목표
중장기 옵션	베트남 푸미항 해저케이블 공장 검토, PTSC와 JDA 체결

자료: LS전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H26 실적 리뷰: 본사 수익성 유지, 연결 실적은 2분기부터 개선

**연결 실적 개선은 패키징 자회사의
손실 축소가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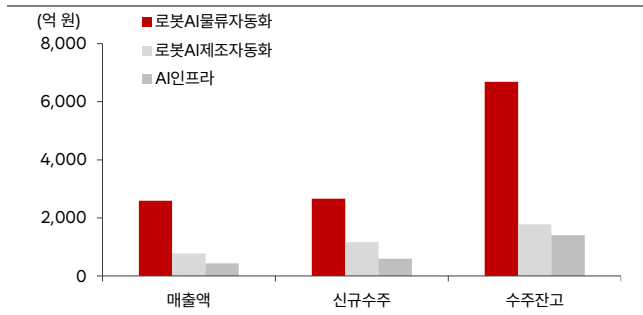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6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44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매출액 3,611억원, 영업이익 154억원으로 영업이익률 4.3%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매출액이 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87.7%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7.2%로 상승했다. 상반기 누적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부진했으나, 2분기 들어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회복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SFA 별도 기준으로는 외형 감소에도 높은 수익성이 유지됐다. 1H26 매출액은 3,7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63억원(YoY -9.1%), 영업이익률은 12.2%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매출액 1,89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에서 2분기 매출액 1,901억원, 영업이익 244억원으로 매출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이익이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11.5%에서 12.9%로 상승했다. 상반기 매출 감소는 2025년 상반기 신규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매출 인식에 반영된 영향이 컸으나, 본사 수익성은 견조하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한다.

별도 제품군별로는 로봇AI물류자동화가 1H26 매출액 2,590억원으로 전체 별도 매출의 약 68%를 차지했고, 로봇AI 제조자동화 778억원, AI인프라 42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AI인프라는 2025년 연간 매출액 212억원을 상반기에 이미 두 배 이상 상회했으며, 로봇AI제조자동화 수주잔고도 2025년 말 1,061억원에서 1H26말 1,78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외법인 분할수주를 포함한 1H26 별도 실질 신규수주는 5,07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했고, 수주잔고도 2025년 말 9,119억원에서 1H26말 9,875억원으로 확대돼 하반기 이후 매출 회복을 위한 수주 기반이 강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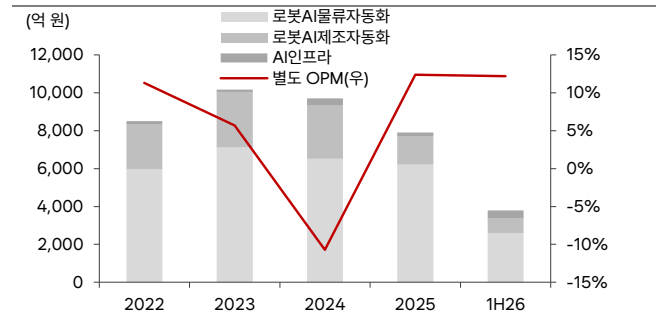
연결과 별도의 수익성 차이는 자회사 실적에서 발생했다. 1H26 연결 사업부문별로 로봇물류는 매출액 3,276억원, 영업이익 414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2.6%를 기록했고, AI솔루션도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으로 7.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차전지 장비 자회사인 SFA넥셀 역시 1H26 매출액 1,224억원으로 전년대비 -48.4%의 역 성장을 보였으나, 반기 순이익은 191억원(YoY +220.8%)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반면 반도체패키징은 매출액 2,336억원에도 영업손실 120억원을 기록하며 연결 수익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SFA 별도 영업이익률은 12%대를 유지했지만 연결 영업이익률은 5.8%에 머물렀다. 향후 연결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본사 매출 회복과 함께 반도체패키징의 손실 축소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별도 1H26 사업부문별 매출액, 신규수주, 수주잔고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별도 사업부문별 매출액, OPM 추이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1H26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구분	25Y 1H	26Y 1H	YoY 증감률
매출액	8,434	7,612	-9.7%
SFA	4,217	3,796	-10.0%
SFA 넥셀	2,374	1,224	-48.4%
SFA 반도체	1,514	2,336	54.3%
영업이익	502(5.9%)	444(5.8%)	-11.4%
순이익	241(2.9%)	438(5.7%)	80.5%

자료: SF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전망: 2026년 이익 정상화, 2027년 성장 본격화

2026년은 연결 기준 이익 정상화

2027년은 성장 재개

2026년 연결 매출액은 1조 7,550억원(+7.6% YoY), 영업이익은 1,357억원(+58.0% YoY)으로 전망한다. 영업이익률은 2025년 5.3%에서 7.7%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상반기까지는 전년도 수주 부진의 후행 영향으로 외형 회복이 제한됐으나, 2025년 하반기 이후 증가한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H26 별도 실적 신규수주는 5,07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했고, 별도 수주잔고도 1H26말 9,875억원으로 확대돼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매출 성장의 기반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SFA 별도 매출액은 2026년 8,901억원(+12.6% YoY), 2027년 1조 566억원(+18.7% YoY)으로 추정한다. 2026년 제품군별 매출액은 로봇AI물류자동화 6,141억원, 로봇AI제조자동화 1,660억원, AI인프라 1,100억원을 예상한다. 로봇AI물류자동화는 1H26 매출액 2,590억원에서 2H26 3,551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37.1% 증가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로봇AI제조자동화는 MLCC·연료전지 장비를 중심으로 외형 회복이 예상되며, AI인프라는 해저케이블 장비 매출 확대에 힘입어 신규 성장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한다.

연결 사업부문별로는 2026년 로봇물류 매출액 7,750억원, 영업이익 967억원을 전망한다. 1H26 매출액 3,276억원에서 2H26 4,474억원으로 외형이 확대되면서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AI솔루션은 매출액 5,150억원, 영업이익 430억원을 예상하며, MLCC·연료전지 등 신규 사업이 기존 이차전지 프로젝트의 매출 지연 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반도체패키징은 매출액 4,650억원, 영업손실 40억원을 예상한다. 상반기 적자가 지속됐으나 하반기 신규 테스트라인 가동과 가동률 개선을 통해 손실폭은 축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7년에는 별도 성장축 확대와 자회사 손익 정상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실적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결 매출액은 2조 178억원(+15.0% YoY), 영업이익은 1,829억원(+34.8% YoY)으로 추정하며, 영업이익률은 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물류 매출액은 9,000억원, 영업이익 1,118억원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AI솔루션도 매출액 6,178억원, 영업이익 56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패키징은 2026년 영업손실 40억원에서 2027년 영업이익 150억원으로 흑자전환하면서 연결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6년은 본체 매출 회복과 자회사 적자 축소를 통한 이익 정상화 구간, 2027년은 본업 성장과 자회사 정상화가 맞물리는 성장 구간으로 판단한다.

별도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2027F
별도 매출액	8,509	10,179	9,713	7,902	8,901	10,566
로봇AI물류자동화	5,965	7,126	6,521	6,211	6,141	6,948
로봇AI제조자동화	2,389	2,920	2,798	1,479	1,660	2,140
AI인프라	154	133	394	212	1,100	1,478
별도 영업이익	961	584	-1,043	977	1,037	1,269
별도 영업이익률	11.3	5.7	-10.7	12.4	11.7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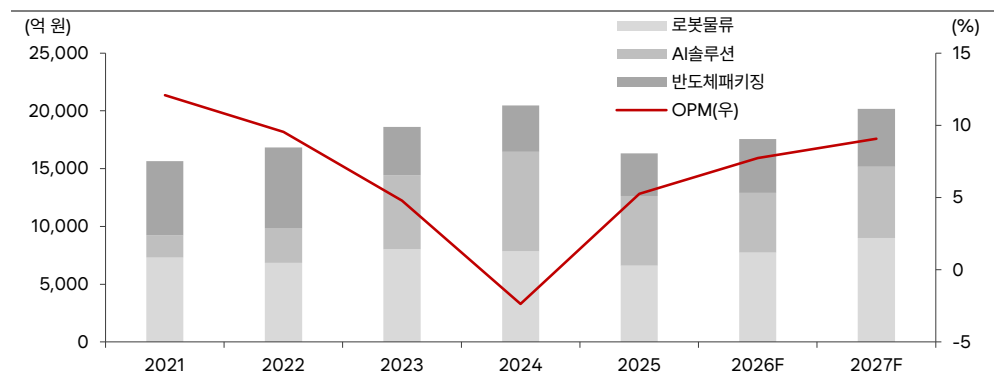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2027F
연결 매출액	16,844	18,604	20,454	16,310	17,550	20,178
로봇물류	6,855	8,045	7,851	6,610	7,750	9,000
AI솔루션	2,998	6,393	8,601	6,030	5,150	6,178
반도체패키징	6,991	4,166	4,002	3,669	4,650	5,000
연결 영업이익	1,609	889	-484	859	1,357	1,829
연결 영업이익률	9.6	4.8	-2.4	5.3	7.7	9.1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실적 전망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Peer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복합 사업구조는 할인 요인

동사는 TTM 기준 P/E 16.7배, P/B 0.7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교기업들의 컨센서스 부재로 TTM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비교기업 중 피엔티의 TTM P/E가 10.0배로 동사보다 낮은 반면, 코원테크 22.3배, 하나마이크론 22.9배, 원익IPS 49.4배, 현대무비스 282.0배로 대부분 동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P/B 역시 동사는 0.7배(2025년 ROE 6.1%)로 코원테크(ROE 1.0%)와 함께 Peer 최하단에 위치하며, 피엔티 1.3배(ROE 11.4%), 원익IPS 5.7배(ROE 9.1%), 하나마이크론 5.9배(ROE 9.9%), 현대무비스 17.6배(ROE 6.8%) 대비 낮다. 사업구조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주요 자동화·장비 Peer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사는 로봇물류,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반도체 물류 및 공정·검사장비, 반도체패키징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단일 Peer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무비스와 코원테크는 물류자동화, 피엔티는 이차전지 장비, 원익IPS는 반도체 장비,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패키징이라는 각각의 사업축을 비교하기 위한 Peer이다. 따라서 Peer 평균 배수를 동사에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각 사업영역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반도체 공정·검사장비는 아직 개발 및 고객 검증 단계이고, 반도체패키징 자회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 대한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밸류에이션 할인 축소 여부는 로봇AI물류 성장의 가시성과 반도체패키징 손익 정상화에 달려 있다. 현재 동사는 TTM 기준 P/E 16.7배, P/B 0.7배로 주요 Peer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복합 사업구조와 자회사 실적 변동성이 일정 부분 할인 요인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본업 성장성과 자회사 정상화가 확인될 경우 현재 할인 폭은 축소될 여지가 있다.

피어그룹 밸류에이션 테이블

(단위: 십억원, 배)

자수 및 기업명	총가 (원)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2025	TTM	2025	TTM	2025	TTM	2025	TTM
SFA	23,400	840	1,631	1,594	86	72	15.3	16.7	0.7	0.7
현대무비스	25,100	2,796	394	391	18	13	190.3	282	12.9	17.6
코원테크	10,300	120	155	168	-25	-24	110.2	22.3	1.1	0.7
피엔티	33,150	785	745	694	96	90	13	10	1.4	1.3
하나마이크론	35,450	2,357	1,534	1,730	128	188	44.8	22.9	4.3	5.9
원익 IPS	111,500	5,473	910	951	74	92	39.7	49.4	3.4	5.7

주: 주가는 8월 12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정상화와 자사주 정책이 재평가의 핵심

연결 기준 이익 정상화와 자사주
소각은 재평가의 촉매가 될 것

2026년 연결 영업이익은 1,357억원(+58.0% YoY), 지배주주순이익은 922억원으로 추정한다. 2027년에는 연결 영업이익 1,829억원, 지배주주순이익 1,190억원으로 증가하고 ROE도 11.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주가 기준 P/E는 2026년 9.1배, 2027년 7.1배로 낮아진다. 이익 정상화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Peer 대비 할인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주주환원 정책도 추가적인 재평가 요인이다. 2026년 중간배당은 주당 365원으로 결정됐으며, 시가배당률은 1.54%, 배당총액은 약 102억원이다. 동사는 2026년 연간 DPS를 95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 주가 기준 예상 배당수익률은 약 4.1% 수준이다. 안정적인 현금배당이 지속될 경우 배당수익률은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기주식 역시 주당가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자기주식은 800만9,848주로 발행주식수의 22.3%였으며, 이후 일부 처분을 통해 최근 비중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여전히 높은 자기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잔여 자기주식의 활용 및 소각 여부가 추가적인 재평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각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밸류에이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

구 분		종류	자기주식수		취득방법	목적	비 고
직접 보유	보유/처분 대상*	보통주	966,144주	2.7%	장내 신탁 취득 (취득 완료)	임직원 보상	주주총회 승인
	계획 미정	보통주	6,837,826주	19.0%	장내 신탁 취득 (취득 완료)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증대 목적의 취득 물량으로, 소각/보유/처분 결정 예정	
	신탁 보유	보통주	205,878주	0.6%	장내 신탁 취득 (취득 진행 중)		
합계		보통주	8,009,848주	22.3%			

* 최대 966,144주로, 3개년(26년~28년)간의 성과 달성 정도와 임직원수 변동에 따라 실제 처분 수량은 변동 가능함

-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일 현재 자기주식은 8,009,848주(22.3%)임
- 이중 966,144주(2.7%)는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으로 보유/처분할 계획인바, 제28기 정기주주 총회 승인을 득함
- 잔여분 7,043,704주(19.6%)은 공시일 현재 계획미정으로, 상법개정내용 및 주주가치 제고관점에서 소각계획 검토 중임
→ 소각계획 수립완료 시 그 내용 공개 및 소각 추진 예정임

자료: SF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자회사 손익 정상화 지연에 따른 연결 수익성 부담

SFA 별도 본사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결 실적은 자회사 손익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1H26 별도 영업이익률은 12%대를 유지한 반면 연결 영업이익률은 5.8%에 머물렀으며, 반도체패키징 부문의 적자가 연결 수익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결 이익 개선은 본사 매출 회복뿐 아니라 자회사 손익 정상화 여부에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패키징 부문은 신규 테스트라인 가동과 가동률 개선을 통해 2026년 손실 축소, 2027년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으나, 고객사 물량 회복이 지연되거나 신규 라인의 가동률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솔루션 역시 이차전지 투자 사이클과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전방투자 지연이 지속될 경우 수익성 회복 속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자회사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별도 본사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결 영업이익률과 ROE 개선 폭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밸류에이션 할인 축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신규 반도체 공정·검사장비의 상용화 지연 가능성

동사가 개발 중인 AI 기반 HBM 비파괴 검사장비, Flip Chip Bonding 비파괴 CT 검사기, WLP Review SEM, TGV 복합검사기, Advanced Package용 3D 배선 형성 장비 등은 기존 반도체 물류사업의 고객 기반을 활용해 공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옵션이다. 다만 현재 상당수 장비가 개발 또는 고객 검증 단계에 있어 실제 양산 적용까지는 일정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반도체 장비는 고객사의 성능 평가와 공정 인증, 양산 검증 과정이 요구되는 만큼 개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매출 인식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HBM과 Advanced Packaging 관련 검사·공정장비는 높은 정밀도와 공정 안정성이 요구되며, 고객사의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수율 개선 효과가 확인돼야 본격적인 양산 채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객 평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경쟁 장비 대비 성능 우위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현재 관련 장비는 2026~2027년 실적에 대규모 매출을 반영하기보다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 향후 반도체 사업의 공급 범위 확대와 부가가치 상승 속도 역시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8,604	20,454	16,310	17,550	20,178
증가율(%)	10.4	9.9	-20.3	7.6	15.0
매출원가	16,757	18,159	14,481	15,093	17,059
매출원가율(%)	90.1	88.8	88.8	86.0	84.5
매출총이익	1,847	2,295	1,829	2,457	3,119
매출이익률(%)	9.9	11.2	11.2	14.0	15.5
판매관리비	958	2,779	970	1,100	1,290
판매관리율(%)	5.1	13.6	5.9	6.3	6.4
EBITDA	1,733	470	1,746	2,294	2,665
EBITDA 이익률(%)	9.3	2.3	10.7	13.1	13.2
증가율(%)	-19.7	-72.9	271.4	31.4	16.2
영업이익	889	-484	859	1,357	1,829
영업이익률(%)	4.8	-2.4	5.3	7.7	9.1
증가율(%)	-44.7	적전	흑전	58.0	34.8
영업외손익	-270	-205	-142	29	36
금융수익	225	226	121	130	145
금융비용	169	223	147	147	143
기타영업외손익	-327	-207	-116	46	34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619	-689	717	1,386	1,865
증가율(%)	-61.3	적전	흑전	93.3	34.6
법인세비용	114	-248	196	347	466
계속사업이익	506	-442	521	1,040	1,399
중단사업이익	-29	120	0	0	0
당기순이익	476	-321	521	1,040	1,399
당기순이익률(%)	2.6	-1.6	3.2	5.9	6.9
증가율(%)	-55.1	적전	흑전	99.5	34.6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400	-726	551	922	1,190

현금흐름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67	4,026	1,516	1,966	1,705
당기순이익	476	-321	521	1,040	1,399
유형자산 상각비	594	643	573	678	632
무형자산 상각비	250	311	314	283	225
외환손익	170	74	69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475	1,005	372	2	-515
기타	218	2,314	-333	-37	-3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7	-896	-933	-536	-37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418	934	459	-10	-21
유형자산의 감소	16	9	47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62	-946	-915	-500	-300
기타	-2,099	-893	-524	-26	-5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43	-2,428	-1,008	-863	-361
차입금의 증가(감소)	2,666	-1,238	-348	-598	-96
사채의증가(감소)	-0	-135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244	-120	-108	-265	-265
기타	-679	-935	-552	0	0
기타현금흐름	-23	58	-5	179	37
현금의증가(감소)	826	760	-429	747	1,005
기초현금	1,802	2,628	3,388	2,959	3,706
기말현금	2,628	3,388	2,959	3,706	4,711

재무상태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유동자산	17,873	13,810	11,928	12,751	15,089
현금성자산	2,628	3,388	2,959	3,706	4,711
단기투자자산	976	367	617	500	553
매출채권	3,939	2,197	2,338	2,516	2,892
재고자산	5,517	4,579	2,506	2,697	3,100
기타유동자산	4,813	3,279	3,508	3,333	3,832
비유동자산	10,380	10,986	10,692	10,240	9,704
유형자산	6,342	6,676	6,772	6,593	6,261
무형자산	3,137	2,838	2,576	2,293	2,067
투자자산	366	222	304	314	335
기타비유동자산	535	1,250	1,040	1,040	1,041
자산총계	28,253	24,796	22,619	22,991	24,793
유동부채	8,651	8,156	5,587	5,134	5,697
단기차입금	868	500	773	673	573
매입채무	1,775	1,379	993	1,069	1,229
기타유동부채	6,008	6,277	3,821	3,392	3,895
비유동부채	3,425	1,416	1,929	1,979	2,08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646	300	950	950	950
기타비유동부채	779	1,116	979	1,029	1,135
부채총계	12,076	9,572	7,517	7,114	7,782
자배주주지분	10,334	9,053	8,972	9,629	10,554
자본금	180	180	180	180	180
자본잉여금	400	400	402	402	402
자본조정 등	-1,142	-1,724	-2,207	-2,207	-2,207
기타포괄이익누계액	95	253	210	210	210
이익잉여금	10,801	9,944	10,388	11,045	11,969
자본총계	16,178	15,224	15,103	15,877	17,011

주요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F	2027F
P/E(배)	27.3	N/A	15.2	9.1	7.1
P/B(배)	1.1	0.8	0.9	0.9	0.8
P/S(배)	0.6	0.3	0.5	0.5	0.4
EV/EBITDA(배)	10.1	26.2	7.8	5.4	4.3
배당수익률(%)	0.9	1.4	4.1	4.1	4.1
EPS(원)	1,113	-2,022	1,534	2,568	3,313
BPS(원)	28,779	25,211	24,986	26,816	29,391
SPS(원)	51,808	56,960	45,419	48,874	56,192
DPS(원)	280	270	950	950	950
수익성(%)					
ROE	3.8	-7.5	6.1	9.9	11.8
ROA	2.0	-1.2	2.2	4.6	5.9
ROIC	8.0	-6.4	3.8	7.8	10.9
안정성(%)					
유동비율	206.6	169.3	213.5	251.8	267.6
부채비율	74.6	62.9	49.8	44.8	45.7
순차입금비율	4.6	-5.8	-6.4	-15.0	-20.6
이자보상배율	7.6	-3.5	8.6	16.2	25.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8	0.8	0.7	0.8	0.8
매출채권회전율	5.9	6.7	7.2	7.2	7.5
재고자산회전율	4.9	4.1	4.6	6.7	7.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SFA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18	SFA-완전 무인화를 선도하는 AI 자율제조 로보틱스 기업
2025.05.26	SFA-이차전지 약재에서 바닥 탈피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